※※※ 알림글 ※※※

티스로티 블로거 "차삐라" 입니다.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를 중심으로
AFC챔피언스리그, 내셔널리그, 대표팀 기록,
J리그 소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 클릭하면 블로그 이동

http://chappira.tistory.com

번역 중 오타,오역,의역 등이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각 페이지 하단에 원본 주소가 있으며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J.LEAGUE 20th Anniversary

スポーツで、もっと、幸せな国へ。Jリーグ百年構想

OFFICIAL NEWS LETTER

J.LEAGUE

31 Oct. 2013 Vol.210

J.LEAGUE™ NEWS

양팀의 주목 FW, 우라와의 原口 (좌)와 카시와의 工藤 (사진은 모두 준결승 2차전)

결승은 우라와레즈 vs 카시와레이솔

2013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준결승에서, 우라와는 카와사키F, 카시와는 요코하마FM을 이기다.

2013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타이틀을 경쟁하는 것은, 우라와레즈와 카시와레이솔. 우라와는 카와사키프론탈레를, 카시와는 요코하마F마리노스를 각각 준결승에서 이기며, 결승 티켓을 손에 넣었다. 우라와는 10월12일에 개최된 준결승 2차전에서 1-0 승리. 대전 성적은 1승1패. 2시합 합계 3-3으로 같았지만, 원정에서 기록한 득점수에서 많아, 2년만에 5번째 결승 진출. 카시와는 2차전에서 요코하마FM에 0-2로 패해 1승1패가 됐지만, 1차전에서 4-0으로 쾌승해, 2시합 합계 4-2로 14년만에 2번째 결승 진출을 해냈다. 결승은 11월2일(토). 국립경기장이 무대.(2~3페이지 관련기사)

J.LEAGUE™ TOP PARTNERS

Calbee Canon KONAMI AIDEM Coca-Cola McDonald's JCB

J.LEAGUE™ 100 YEAR VISION PARTNER: 朝日新聞
J.LEAGUE™ FAIRPLAY PARTNER: 東京エレクトロン
LEAGUE CUP SPONSOR: ヤマザキナビスコ
SUPER CUP SPONSOR: FUJI xerox
J.LEAGUE™ OFFICIAL EQUIPMENT PARTNER: adidas
J.LEAGUE™ OFFICIAL SUPPLIER: Johnson & Johnson
J.LEAGUE™ OFFICIAL BROADCASTING PARTNER: スカパー!
SPORTS PROMOTION PARTNER: toto
J.LEAGUE™ OFFICIAL TICKETING PARTNER: ぴあ

編集・発行 公益社団法人 日本プロサッカーリーグ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우라와레즈는 원정골 차로 승리. 1차전 리드가 효과를 본 카시와레이솔

2차전에서 귀중한 결승골을 넣은 우라와의 興梠(사진 위). 사진 아래는 那須우라와의 (좌),카와사키F의 大久保공방

카시와는 2차전에서 田中(중앙)등 공격진의 열심히 수비(사진 위).사진아래는 요코하마FM의 선제골을 넣은 マルキーニョス

우라와레즈는 2년만에 5번째 결승진출을 해냈다. 카와사키프론탈레와 원정에서 싸운 1차전에서 2-3으로 패해, 이기는 것이 절대조건이었던 2차전. 승리에 필요한 득점을 해야하기에,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공격했다.

카와사키F의 GK杉山力裕의 세이브드웅로 무득점인 채 시간이 경과됐지만, 80분에 FW興梠慎三가 MF関口訓充의 크로스를 교모하게 맞혀 기대하던 선제골을 넣었다. 이 득점에 따라 2차전에서 1-0으로 이긴 우라와는 준력승 대전성적을 1승1패, 2시합 합계 점수를 3-3으로 해, 원정에서 기록한 득점수에서 많아 카와사키F를 물리쳤다. 2차전에서 승리에 공헌한 関口는「결승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팀을 위해 달릴지,같은편을 도울수 있을지가 중요」라며 말했다.

한편, 준결승 1차전에서 요코하마F마리노스에게 4-0으로 쾌승한 카시와레이솔은, 2차전에서 0-2로 패해 대전성적은 1승1패가 됐지만, 2시합 합계 점수가 4-2로 14년만에 2번째 결승진출을 달성했다.「1차전 (4골)리드가 효과를 봤다」라는 넬싱요감독. 2차전은 역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요코하마FM이, FWマルキーニョス,MF佐藤優平의 득점으로 전반에 2득점 리드를 하며, 후반은 카시와가 수비를 견고히하며 상대 공격을 골문앞에서는 물리쳤다. 결승에 대해 FW工藤壮人, DF渡部博文가「출전정지 선수 분까지 열심히하고싶다」라며 입을 모았다.

우라와는 2003년,카시와는 1999년에 야마자키나비스코컵에서 첫우승을 하며, 함께 2번째 우승을 노린다. 11월2일(토)에 열리는 결승은 2014년부터 개축이 시작되는 현재 국립경기장이 무대가 되는 컵대회 마지막 파이날. 영광의 무대에서 높이 우승컵을 올리는 것은 우라와일까 아니면 카시와일까

2013 J리그 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 토너먼트

※표 우측 팀을 홈팀 취급한다. (표 우좌측팀:1차전 홈/좌측팀:2차전 홈)

과거 결승 (1995년은 개최안됐음)							
개최년	결승(큰글자 우승팀)			개최년	결승(큰글자 우승팀)		
1992	**베르디카와사키**	1-0	시미즈에스펄스	2003	카시마앤틀러스	0-4	**우라와레즈**
1993	**베르디카와사키**	2-1	시미즈에스펄스	2004	F토쿄	0-0(PK4-2)	우라와레즈
1994	**베르디카와사키**	2-0	주빌로이와타	2005	제프유나이티드이치하라	0-0(PK5-4)	감바오사카
1996	베르디카와사키	3-3(PK4-5)	**시미즈에스펄스**	2006	카시마앤틀러스	0-2	**제프유나이티드이치하라**
1997	**카시마앤틀러스**	2-1、5-1※	주빌로이와타	2007	카와사키프론탈레	0-1	**감바오사카**
1998	**주빌로이와타**	4-0	제프유나이티드이치하라	2008	오이타트리니타	2-0	시미즈에스펄스
1999	카시와레이솔	2-2(PK5-4)	카시마앤틀러스	2009	FC토쿄	2-0	카와사키프론탈레
2000	카와사키프론탈레	0-2	**카시마앤틀러스**	2010	주빌로이와타	5-3	산프레체히로시마
2001	주빌로이와타	0-0(PK1-3)	**요코하마F마리노스**	2011	우라와레즈	0-1	**카시마앤틀러스**
2002	**카시마앤틀러스**	1-0	우라와레즈	2012	시미즈에스펄스	1-2	**카시마앤틀러스**

※ホーム&アウェイ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TOPICS トピックス (9月26日～10月17日)

※各項目の詳細については、Jリーグ公式ホームページ(http://www.j-league.or.jp)を参照

「코카콜라 J리그 월간MVP」 9월 수상선수 결정

매월 리그전(J1,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는「코카콜라 J리그 월간MVP」9월 수상선수가 결정됐다. J1은 FC토쿄의 MF長谷川アーリアジャスール, J2코베의 MF小川慶治朗. 수상한 J1선수에게는 상금 30만엔, J2선수에게는 20만엔을 수여. 심사는 당해월 리그전에서 활약을 대상으로, 축구전문미디어와 J리그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행해진다.

9월 3연승에 공헌해,순위부상 원동력이 된 長谷川

카시와레이솔이 준결승에서 탈락

아시아 클럽 챔피언을 결정하는 AFC챔피언스리그(ACL)2013에서 일본세로서 유일하게 남았던 카시와레이솔이,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H&A에 의한 준결승이 9월25,10월2일에 열려,카시와는 광저우헝다(중국)에 홈에서 1-4,원정에서 0-4로 연패. 2007년 우라와레즈,08년 감바오사카에이어 ACL결승진출 희망이 끊어졌다.

J리그와 JPFA가 노사협의회를 개최

J리그와 JPFA(일본프로축구선수회)가 10월7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J리그 오히가시의장이 2015시즌부터 시작되는 J1리그전 2스테이지제 도입에 이르게된 경위등을 설명. 의장은「선수회와 기본 인식은 공유할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선수회의 佐藤寿人회장(산프레체히로시마)는「앞으로의 리그 발전을 생각했을 때,포스트시즌 도입은 피할수 없다고 저도 느꼈다」라고 이해를 표했다.

중앙에서 악수하는大東의장과(우)와 佐藤

지역리그소속 J리그준가맹 클럽 3클럽에 대한 J3참가위한「J3라이센스기준」심사종료연장

J리그는 10월1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J3참가위한「J3라이센스기준」(스텝2) 심사에 관해, 당초예정됐던 10월이사회까지 심사종료를,동북1부리그의 그루자모리오카,토카이1부리그의 아슬클라로누마즈, 주코쿠리그의 레노파야마구치등 지역리그 소속의 J리그 준가맹 3클럽에 대해서는1개월 연장해, 11월 이사회에서 심사결과를 내는 걸 결정했다. 이에의해 3클럽에 대한 J3입회 최종결정은 12월 이사회가 된다.

■ 심사종료 연장 이유

(1) J3라이센스를 정하는 인원(클럽스탭,팀스탭등) 충족을 뒷받침하는, 차기 수입 실현가능성을 조사한다.

①J3에 대해서도 라이센스심사를 도입한 목적은「리그전을 안정히 운영한다」그리고「클럽경영의 기반을 착실히 정리한다」는걸 J리그로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의 표명이며, 클럽도 그 중요성을 의식하기 위해서다.

②지역리그에서 3클럽이 J3라이센스심사로 진해되기로 했지만 심사 상황부터 생각해,실질적으로 이 3클럽 중 1클럽이 사상첫「지역리그에서 월반(JFL을 거치지않고 입회」로 J리그에 입회하기로 됐다. 월반에 의해 J3를 안정히 운영하기위해, 사원(클럽스탭)과 팀스탭을 폭넓게 증원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를 위해서는 차기 수입예산 달성이 필수가 되기 때문.

③차기 수입예산달성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차기 광고료수입인 분명하지만, 이 승비 내정현황에 대해서는 스폰서의 의향도 있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사해야하기 때문.

④상기③에 따라 차기 광고료수입 내정상황을 토대로, 차기 클럽스탭등 J3라이센스 취득에 필요한 인원을 늘릴수 있을지와 그에 의한 J3라이센스심사 합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하고싶기 때문.

⑤또 3클럽에 대해서는 준가맹 승인에「J3참가에 대한 경우는 차기 예산을 조속히 편성 후 지역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산으로서 넣고있는 수입을 조속히 확정시킬 것」과 부대사항을 내놓았다. 이에 맞춰 10월4일까지 3클럽보다 차기예산이 제출됐다.

(2)「먼저 J3라이센스를 교부하는 것」에 대한 단점 억제

①3클럽에 대해 J3라이센스를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클럽전체 기초체력강화」등,J3설립 취지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과제가 발생한다.

a)J3입회가 결정된 후 수입예산 미달로 필요한 인원이 모자라게 돼,J3라이센스를 사후적으로 충종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②상기 과제는 그대로 올해(10월)에 J3라이센스를 교부하는 단점을 직결하기 때문에 이 단점을 억제해 다시 J3클럽 경영기반 안정화라는 기본적인 취지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기때문.

공로선수상에 대해

J리그는 10월1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전J리그 선수인 中山雅史,土肥洋一,服部公太 3명에 대해, 공로선수상을 시상하는 걸 결정했다. 또 공로선수상은 12월10일(화)에 카나카와현의 요코하마아리나에서 개최하는「2013 J리그어워즈」에서 시상한다. J리그어워즈는 올해도 팬,서포터 관람희망자를 1만명 모집해 개최한다.

수상자		
中山雅史	1993년~20009년	주빌로이와타
	2012년~2012년	콘사도레삿포로
土肥洋一	1993년~1999년	카시와레이솔
	2000년~2007년	FC토쿄
	2008년~2012년	토쿄베르디
服部公太	1996년~2011년	산프레체히로시마
	2012년	파지하노오카야마

제6회 감바오사카스칸비오컵을 후원

J리그는 10월1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11월9일(토)에 오사카부吹田시 만박풋살클럽에서 개최된「제6회감바오사카스칸비오컵」(주최:주식회사감바오사카)를 후원하는 걸 결정했다. 본 대회는 축구(풋살)을 통해 정신장애자가 사회생활을 접할 기회를 만들며,사회복귀와 회복에 대한 지원을 해,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도모하면서, 이 활동을 넓히는 걸로 정신장애자에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제6회 스포츠클럽서밋을 후원

J리그는 10월1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11월16일(토)17일(일)에 토쿄도시부야구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 종합센터 (국제교류동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제6회 스포츠클럽서밋」(주최:공익재단법인 일본스포츠클럽협회)를 후언하는 걸 결정했다. 이 서밋은 전국에 각종 스포츠클럽을 보급,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다.

마루한컵 제19회 일본전동휠체어 축구 선수권대회를 후원

J리그는 10월1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11월2일(토)에 오카야마현岡山시의 오카야마현종합그라운드 체육관 모모타로아리나에서 개최된「마루한컵 제19회 일본전동휠체어 축구 선수권대회」(주최:일본전동휠체어축구대회)를 후원하는 걸 결정했다. 이 대회는 일본국내에서 전동휠체어축구 보급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주식회사브리지스톤,주식회사사간드림스 공동개최「특별강연회」를 후원

J리그는 10월15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23일에 주식회사브리지스톤과 주식회사사간드림스가 공동개최한「특별강연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로 6번째가 된 이 강연회는 지역밀착을 내거는 사간드림즈(사간토스)가 클럽스폰서인 지역기업과 함께 한층 더 지역공헌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 J.LEAGUE PHOTOS

J리그 디비전3 (J3)설립을 맞아

올해 3월에 열린 미디어 설명회에서 개요가 밝혀진 J리그디비전3 (J3)는, 그후 참가희망 클럽 심사등 2-14시즌 개막을 향한 준비가 진행돼, 연내에는 참가 12팀이 결정될 예정. 이 J3설립에 당초부터 관련돼왔던 J리그 이사이기도한 大河正明 관리총괄본부장이 발족 경위,예상하는 J리그상 등을 얘기했다.

이념적 근거와 현실적 문제

J3설립의 이념적인 근거에는 지역에 부리내린 스포츠클럽을 전국으로 만들어 축구를 보는 사람, 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의 울타리를 넓히고 싶은 것이 J리그 이념이며, 그에 찬성하는 회원을 늘리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가희망 클럽에 대한 히어링등을 실시해 가는 것과, JFL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클럽이 장래 ㅓ리그 입회를 바라고 있어, 지역리그에도 찬성하는 클럽이 늘어나고 있다면, J3라는 형태로 동료를 늘려도 되지않을까, 라는 것이 하나의 배경입니다.

한편, 현시력인 질문도 있습니다. JFA(일본축구협회)와 J리그는 2008년 미래구상연구회에서 J1을 18클럽, J2를 22클럽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그 아래에 대해서는 JFL 활성화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FC마치다젤비아,마츠모토야마가FC의 J2입회로 J1,J2의 40클럽 체제가 실현돼, 그 시즌 마지막에는 J2와 JFL간의 교체도 현실성을 띠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목적을 가진 회원의 모임인 사단법인의 이념과 다른 현실이 생기게 된다. 클럽이 나눠져 간다는 것으로 J리그 이념의 구현화가 후퇴해서는 안된다. 교체된 클럽을 어떻게 J리그 테투리로 둘것인가라는 의논도 있어, J3의 창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기가 이른지 느린지는 별도로하해, 클럽수가 늘어난다면 J3의 필연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3설립을 향한 현실적으로 시작한 것은 2년전 정도였습니다. JFL 이사로도 임하는 J리그의 窪田慎二 기획부장으로부터 「지금 JFL로는 활성화는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어, 선수로서도 현장을 알고 있는 그의 말은 저에게 매우 영향을 줘,또한 무거웠습니다.「클럽마다 서포터의 수도 다르고,목표로하는 것도 다르다. 방향감을 같이하는 클럽에서 새로운 리그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JFA와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진행해갈지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요구되는 인재

클럽 예싼규모는 1억5000만~3억엔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산이 2억엔 클럽이 1억엔 적자를 내는 것은 안니다. 수백만엔 적자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경영자에게 어느정도 자산배경이 있어, 조금 스폰서를 모으거나 입장자수가 늘어나면 극복 가능한 숫자입니다. 제대로 예산을 관리한다면 재정파탄 가능성은 적지는 않을까. 수입은 가볍게 예상하고 지출은 많게 본다. 이것은 경영상 평범한 생각방식이며, J3를 노리는 클럽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럽수가 늘어나는 것에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 인재입니다. 크게 나누면 강화육성, 사업운영,관리 3개이지만, 이것을 높은 수준에서 모두 소화할수 있는 인재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이 관리계라면 강화,사업에 강한 사람을 균형있게 배치해야합니다. 특히 예산등 계수면이 어느정도,이해할수 있는 강화담당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GM(제너널매니저)적인 기지도 갖추어 경영규모 범위내에서 얼마나 좋은 팀을 만들어갈까. 이런 인재 육성은 교육기관등과의 협렬고 포함해 J리그로서도 노력해가는 테마의 하나입니다.

팀은 다양한 선수의 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J1과 J2에서 출전기회를 잡지 못했던 젊은 선수, 현역생활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장식하고싶은 선수등, 그런 선수들이 스타로서 활약하는 것도 이상형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J리그와 파트너십 협정을 맺고있는 리그가 있는 국가의 출신선수에게는 특별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J1에서 뛸 수준이 아니어도 그들에게도 하나의 스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국의 관광객 유치와 비즈니스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현장에

J리그는 정점을 높게하는 것을 노리는 한편, 그를위한 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시하고 있어, J3는 철저히 로컬화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컬컨테츠로서 J리그는 J2도 포함해 일정 성과를 얻고있고, J3는 좀더 지역색을 밀어부쳐도 될지 모릅니다.

후쿠시마유나이티드FC를 방문했을 때 일이지만「레노파야마구치와 시합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부말기의 보신(戊辰)전쟁의 아이즈(会津)와 초슈(長州)의 인연으로, 시합도 활기를 띨것입니다. 새로운 더비매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활성화되면 U턴과 I턴등, 지바웅ㄹ 노리는 사람이 늘지도 모른다. 각 지방에는 독특한 맛의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응원하는 대상으로서 스포츠가 더해지면 지역활성화의 촉진으로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J3입회를 노리는 클럽에게는 경영자를 비록해 관계자가 클럽에 대해, 지역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는 것을 절실히 바랍니다. 물론 팀 승패도 중요하지만 클럽이 어떻게 지역에 뿌리내려, 지원해주며, 성장해가는 걸까. 그런 것을 밤낮 생각하고 있는 스탭이 필요하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사장의 이해력, 결단력이 있다면 좋은 사이클이 될 것입니다. 답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현장에 있고, 자신들이 올바른 방식을 찾을수 있는 클럽,스탭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라이센스교부권 제1심 기관(FIB)에 의한 2014시즌 J리그 클럽라이센스 교부에 대해

J리그는 9월30일, 2014시즌 J리그 클럽라이센스(J라이센스)교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J라이센스를 신청한 43클럽 전체가 클럽라이센스 기준을 통과해,J1클럽라이세스는 36클럽,J2클럽라이센스는 7클럽(2013시즌은 각각33,8)에게 교부됐다. 새롭게 J1클럽라이센스를 교부받은 것은 더스파쿠사츠군마,에히메FC,V파렌나가사키 3클럽. J2클럽라이센스 중 J리그 준가맹 클럽으로 현재는 JFL소속인 FC마치다젤비아,츠에겐카나자와,카마타마레사누키는 조건부 교부가돼, 리그전 성적을 포함해 J2입회심산에 합격하면 J2입회가 된다(합격하지 않으면 라이센스는 못받는다)
또「시정통보」「개별통지」라는 경영상 지도를 요하는 클럽은 이전 시즌 18에서 17로 감소했다. 경영상의 과제에 대해서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클럽은 사실상 나가사키를 제외한 16클럽이다.
발표를 한 J리그 大河正明 관리총괄본부장은 J리그 라이센스제도에 대해「작년과 비교해 경기장과 훈련환경에 개선 조짐이 있고, 적자클럽도 줄어드는 등,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걸로 된다는 건 아니라, 관전환경 개선등에는 더욱 힘을 넣어가고싶다」또「2014년도 말 시점에서 3기 연속적자 또는 채무초과가 되는 클럽은 2015시즌 이후 라이센스 기준을 충족못하게 된다. 그에 대해 재무는 경영상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내년이 승부」라 말했다.
J라이센스 교부판정 심사에 대해서는 제3자기관인 클럽라이센스교부 제1심사기관(FIB)가 한다.
J리그는 JFA에서 일본의 클럽라이센스제도 제정 및 운영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일본에서 라이센스 교부기관(라이센서)로서 J리그 클럽라이센스 제도를 운영하고, J클럽 및 준가맹 클럽에 대해 J라이센스를 교부한다.

■ 판정결과

1. 판정결과

	J1클럽라이센스	J2클럽라이센스	합계
판정	36 札幌、仙台、山形、鹿島、栃木、群馬、浦和、大宮、千葉、柏、F東京、東京V、川崎F、横浜FM、横浜FC、湘南、甲府、松本、新潟、富山、清水、磐田、名古屋、京都、G大阪、C大阪、神戸、岡山、広島、徳島、愛媛、福岡、鳥栖、長崎、熊本、大分	미토,키후,톳토리,키타큐슈,마치다,카나자와,사누키	43
(그중 조건부 교부)	–	(3)마치다,카나자와,사누키	(3)

2.B등급 기준 충족상황

	J1클럽라이센스	J2클럽라이센스	합계
B등급 충족	12	1	13
B등급 미충족(문서제출)	24	6	30
합계	36	7	43

3.FIB로부터 경영상 지도

	J1클럽라이센스	J2클럽라이센스	합계
시정통보	9	3	12
개별통보	4	1	5
지도없음	23	3	26
합계	36	7	43

<<참고>>

■J라이센스 종류

J라이센스에는 우측 2종류가 있어,각 라이센스기준 중「A등급」에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J라이센스가 교부된다.

라이센스 종류	내용
J1클럽라이센스	순위등 요건을 만족하면 2014시즌은 J1 잔류또는 승격할 수 있다.
J2클럽라이센스	순위등 요건을 만족하면 2014시즌은 J2 잔류또는 승격할 수 있다.(J1승격은 못한다.)

■판정 부대사항

(1)조건부 교부판정

2013년9월말 시점에서 J라이센스는 교부되지만 별도정해진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J리그 준가맹클럽은 J라이센스 교부를 받은 후 입회심사를 받아 심사에 합격해야 J2입회(승격)할수 있다.

사항	내용
조건부교부	별도 정해진 조건으로,J2입회심사에 합격할 필요가 있다. ※대상:마치다,카나자와,사누키)

(2)B등급기준 미충족

각 라이센스 기준 중「B등급」에 지정된 기준(3개)에 대해서는 그걸 충족하지 않아도 J라이센스는 교부된다. 단,클럽라이센스 교부규칙 제7조 및 제15조에 근거해,B등급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클럽에게는 J라이센스 교부와 동시에 제재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사항	내용
B등급미충족	B등급 기준(특히 경기장 지붕 크기,화장실 수)을 충족하지 않은 클럽에 대해 J라이센스 교부와 동시에 제재가 부과된다. (※대상:30클럽)

[주]클럽라이센스 교부규칙 용어상「제재」라고 엄격히 말하고 있지만, 본건에서 제재의 내용은 FIB에 대한「문서용어」다.구체적으로는「2014시즌에서 사용을 예정하고 있는 경기장에 관해,위생시설 및 지붕 부족에 따라, 관중을 위한 대접이 저수준인 것에 대해, 클럽이 이미 작년보다 실시하고 있는 대접 향상책의 실시상황 및 이후 실시를 2013년10월31일까지 서면으로 회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클럽 경영상의 지도

J라이센스 제정에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판정시 클럽에 경영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FIB가 독자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 지도에는「시정통보」및「개별통지」가 있고, 시정통보가 무거운 지도가 된다.

사항	내용
시정통달	J라이센스 교부 판정에 부대해,클럽경영상 시정해야한다고 생각되는 점에대해,FIB가 대상 클럽에 통보한다. 통보 내용은 공표한다. (※대상:12클럽)
개별통지	「시정통보」까지는 안가지만 FIB에서 클럽경영상 개선을 요청할 취지의 지적이 있은 경우,그걸 받은 라이센스매니저가 대상 클럽에 개별로 지적사항을 통지한다. (※대상:5클럽)

■J라이센스 판정 전제 아래의 이전 조건건을 토대로 판정을 실시했다. 단, 아래는 이전 조건건의 주요한 일부이며, 전부가 아니다.

(1)교부규제 제15조2항

라이센스판정 재료가 되는 것은「클럽이 제출한 라이센스 신청서류 일시(J리그 지시에 근거한 추가제출된 것을 포함)」및「심사에서 나타난 일체 기록」

(2)교부규제 제22조1항

라이센스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상태가 판정기준이 된다.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올해 마감일은 7월일)

(3)클럽라이센스 제도 시설기준 운영에 관한 J리그 이사회결정(2011년8월)

7월1일 시점에서 홈경기장 건설중 또는 보수중인 클럽에게는 아래 대응을 실시
①클럽 및 경기장 소유자로부터 자료를 모아,히어링 실시 후,다음시즌 개막까지 경기장이 공용개시 가능성을 확인
②①이 확인된 경우, 설비도면등에의해 공사완료후 경기장 스펙을 확인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경력 설계 지원 프로그램 J리그판 [세상]科

육성세대부터 경력설계를 위한 노력

J리그는 2010년부터 J리그 인재육성활동에서 선수교육의 새로운 노력으로서, 문부과학성으로부터 경기자,지도자등의 스포츠 경력 형성지원사업을 사업수탁해 「경력 설계 지원 프로그램 J리그판 [세상]科」를 실시하고 있다. J리그 뉴스에서도 그 규모를 전한적이 있지만, 이번호에서는 보다 상세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것은 ①프로를 노리는 경기자로서「축구와 다음의 자신」과 연관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나름의 생각을 가지는 계기로 하는 것 ②경기장로서 필요한「사고력 트레이닝」으로서 스스로 생각해 타인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알며,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리그 아카데미 주니어유스(중학생)을 대상으로 베갈타센다이,요코하마F마리노스,감바오사카, 아비스파후쿠오카 4클럽에서 2010년에 시작. 11년 이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획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강좌를 열어, 13년도 양성강좌를 마지고, 첫해부터 시작해 총63명의 기획자가 탄생한다. 이에따라 4년간 모든 클럽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되었다. (또 13년에는 37클럽 42팀 788명 선수가 참가예정) 그리고 이후는 J리그 아카데미 주니어유스에 그치지않고 고교생과 선수에게 매일 접하고 있는 아카데미코치에게도 그 대상을 넓혀,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간다.

또 이 프로그램을 조정해 J리그가 연고지 활동에도 활용해 갈수있도록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한다.

경력 설계 지원 프로그램 J리그판 [세상]科 실시개요

■대상 J리그아카데미 주니어유스(중학생)선수

■개최기간 5회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실시

※[よのなか]科 http://www.yononaka-net.com/

<프로그램 구성>

J리그를 테마로 4개의 시점 (1:비지니스 구조 2:산업구조 3: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 4:직업에 필요한 능력)에서 프로그램을 구성. 아래 테마로 전체5회 (45분X4회,90분X1회) 수업을 실시

(1회) J리그를 둘러싼「돈」에서 구조를 생각한다

(2회) J리그가 노리는 것을 생각한다

(3회) J리그를 둘러싼「직업」을 생각한다

(4회) 직업과「의지」「역할」「능력」관계를 생각한다

(5회) 자신의 경력 이미지 플랜을 생각한다

<프로그램 특징>

①프로그램 진행...프로그램 진행자을「기획자」로 부르며,정답없는 과제를 제시해 선수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지원한다

②성인 참여 방법...[세상]科에서는「가까운 성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보호자와 코치에게도 선수 속으로 들어와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제공받아, 선수의 생각을「진화」시키는 걸 지원한다.

③게스트 활용...「테마에 어울리는 진짜 게스트」를 초대해 선수에 의해 넓고 깊은 시점에서 깨달음을 준다. 1회에서는 클럽 경영간부로부터 클럽 경영 현상과 전략을, 4회에서는 축구에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직업」「의지」「역할」「능력」관계를 이야기듣는다.

<프로그램 내용>

[세상]科※의 학습 접근에 기초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시켜, 배움에 대한 의의와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특히 다음 5개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위해 필요부가결한 요소로 하고 있다.

・사회를 테마로「사물의 본질」을 생각한다

・사고기술을 기른다.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로서 게스트를 등장시킨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성인을 수업에 참여시킨다

・「정답없는 수업」「실패를 허용하는 수업」을 반복해 실시한다

【수강 선수의 목소리/실시 모습】

●J리그를 둘러싼「돈」에서 구조를 생각한다

・수입과 지출 구조와 J리그르 지원하는 다양한 환경을 알수 있었다.

・평소 당연한 듯이 연습과 시합을 하고있지만,우리들도 많은 사람에세 도움받고있어「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싶다

●J리그가 노리는 것을 생각한다

・J리그는 지역 사람들에게도 도움받고 있고 반대로 J클럽이 지역을 위해 활동해, 서로 협력해 유지되고 있다.

・J리그 본질에 대해서 배울수 있었다. 지금까지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도 필요하다는걸 알았고,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았다.

●J리그를 둘러싼「직업」을 생각한다

・한 시합만으로도 셀 수 없는 직업이 연관되어 있는 걸 알았다.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역할과 의미를 알았다.

●직업과「의지」「역할」「능력」관계를 생각한다

・그사람밖에 할 수 없는「역할」을 맡을수 있게 성장하고싶다

・게스트의 이야리로부터 의지를 높게 가지는 것과,상향심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자신의 경력 이미지 플랜을 생각한다

・축구는 많은 꿈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받고 있어, 선수가 된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애정」을 알수 있었다. 자신도 축구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를 노리고싶다.

・앞으로 되고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피치위에서 플레이할수 있도록 노력하고싶다.

©コンサドーレ札幌

게스트 이야기는 선수들에게,넓고깊은 시점에서 생각할 깨달음을 준다.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Report
リポート

[세상]科 기획자를 체험하며

아사히신문사 편집위원 潮 智史

「경력 설계 지원 프로그램 J리그판 [세상]科」의 개요는 6페이지에서 소개했다. 그러면 실제 모습은 어떤것일까. 진행자인 기획자로서 그 현장에 선 저널리스트가 스스로 체험,감상한 것에 대해 기고해주었다.

요코하마FM에서 기획자를 맡은 潮氏. 아이들의 자주성을 끌어내는 것을 의식하며 임했다고 한다.

「각오가 부족했다」기획자 양성강좌 첫 연수를 받았을 때 솔직한 감상은 이랬다.
이어서「시험받은 것은 선수가 아니라,진행자였던 나였다」이것은 실제로 1회재 프로그램을 마치고 준비부족을 깨달았던 때의 감상이다.
그리고「내용 연구와 준비에 한계는 없다. 세상科에는 얼마든지 넓힐수 있는 가능성과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 전체 5회를 마친 현재의 생각이다.
원래 세상科에 흥미를 가진 것은 4클럽에서 시험적으로 시작한 2010년에 요코하마F마리노스 모습을 취재했던 것이 계기였다. 감각적으로「재밌을 것 같다」라는 것이「실제로 해보고싶다」가 됐다. 안일하다면 안일. 하지만 취재하는 측의 숙명이다. 「어차피 제3자」라는 입장을 넘어 축구와 얽히고싶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다.
기획자를 맡아 강하게 의식한 것은 성인 시선으로 무엇을 가르칠건지, 전수할지 등의 의식을 우선 버리는 것이다.
원래 세상科는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머리에서 생각을 돌게하는 곳이다. 축구 자체가 정답없는 스포츠라 말하며, 세상의 가치관은 이만큼 다양한 지금, 사물의 본질을 되묻는 듯한 장명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들면 컵 속으로 밖에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컵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오도록 묻는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노력했다.
주인공인 선수들과 시합이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주위에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도 자연히 생길것이고, 어른들로부터「고마움을 잊지말고」라고 들어서 가진 마음과는 전혀 다랐다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참가해준 게스트에 대한 반응은 생각 이상이었다. 클럽의 톱을 비롯해 클럽 내외에서 축구와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듣는 기회는 중학생에게는 자극적이었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소극적」「자기표현을 못한다」라고 들어오래지만,그들은 자극주는대로 다양하게 반응을 했다. 얌전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마지막회에 프로그램에서 놀랄정도로 자기주장을 하기도 했다.
「요즘 아이들은...」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사정에 맞춘 핑계일지도 모른다.
담당했던 중학 2학년생 속에는「1년후 유스승격이 못돼도 대학경우로 프로가 된다」라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선수도 있었다. 요즘 중학생은 꿈을 계속 가지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제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그들의 5년후, 10년후 모습을 꼭 쫏아가고싶다.

담당자의 코멘트

J리그 관리총괄본부 기획부 인재교육 경력설계팀
치프 吉田 国夫

클럽스탭과 지도자 이외 축구에 연관된 외부 사람들가 기획자를 체험하는 것은 J리그가 아카데미 연대를 다양한 각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의 이해를 깊게하는 의미로, 매우 의의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내각 섹션,선수,외부관계자등 J클럽이라는 [세상]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줘 이루어진 것이며, 각자가 선수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J리그 이념의 하나인「일본축구의 수준향상 및 축구 보급촉진」의 일조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외부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선수 OB등에게 기획자로서 참가해주기를 바라면서, 여러 파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클럽 선수육서을 강력히 지원해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자극주는 대로 다양한 반응을 했다.

시미즈에스펄스에서의 모습. 그룹워크 성과를 동료앞에서 발표한다.

©清水エスパルス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2013 J유스컵」이 개막

유스연대의 선수육성과 활약의 무대가 되는 「2013 J유스컵 제21회 J리스유스선수권대회」가 10월12일에 개막했다. 21회째 개최를 맞는 이 대회은ㄴ J1,J2 전체40클럽과 J리그 준가맹 클럽인 FC마치다젤비아(JFL)이 참가. 전체 41클럽을 10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서 1회전 풀리그를 한다. 그리고 각 그룹의 1위와 2위 총20팀에게 일반사단법인 일본클럽 유스컵연맹 지역대표인 4팀을 더해 합계 24팀에 의한 1회전제 결승토너먼트를 한다. 결승은 연례의 오사카 나가이스타디움에서 12월23일(월)에 예정돼있다.

J리그 각 클럽은 발족당시부터 일본축구협회, 일본클럽유스 축구연맹, 지역의 축구클럽, 부활동등과 연대해 지역의 육성보급에 힘을 주고있다. 현재 SAMURAI BLUE(일본대표)와 J리그 톱팀의 속에서도 이 대회에 출전한 경험을 쌓아, 성장을 이룬 선수도 적지않다. 역사를 거듭하며, 해마다 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 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선수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 기대된다.

2013 J유스컵 제21회 J리그유스 선수권대회

대회 개요	■대회명칭:2013 J유스컵 제21회 J리그유스선수권대회 ■주최:공익사단법인 일본축구협회/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아사히신문사/닛칸스포츠신문사 ■공동개최:일반사단법인 일본클럽유스축구연맹 ■협찬:주식회사일본여행,그외 미정
예선 리그	■개최일:10월12~27일 ■편성 A그룹(4):삿포로/토치기/오미야/치바 B그룹(4):센다이/미토/카시와/F토쿄 C그룹(4):야마가타.카시마/쿤마/우라와 D그룹(5):토쿄V/니가타/이와타/키후/마치다 E그룹(4):요코하마FC/토야마/나고야/G오사카 F그룹(4):가와사키F/코후/시미즈/C오사카 G그룹(4):요코하마FM/쇼난/마츠모토/쿄토 H그룹(4):톳토리/히로시마/토쿠시마/토스 I그룹(4):코베/나가사키/쿠마모토/오이타 J그룹(4):오카야마/에히메/후쿠오카/키타큐슈
결승토너먼트 (예정)	■1회전:11월2일(토)/J-GREEN사카이,아지노모토필드니시가오카 11월4일(월)/아지노모토필드니시가오카,야마나시쥬긴스타디움 ■2회전:11월9일(토)10일(일)/출전클럽 홈경기장등 ■준준결승:11월17일(일)/킨초스타디움,아지노모토스타디움서경기장 ■준결승:12월21일(토)/킨초스타디움 ■결승:12월23일(월)/오사카나가이스타디움 각예선 그룹 1위와 2위 총20팀에, 일본클럽유스축구연맹 지역대표 4팀을 더한 합계24팀에 의한 1회전 토너먼트 방식

역대 우승 팀

第 1 回(1994年)	베르디카와사키유스
第 2 回(1994年)	감바오사카유스
第 3 回(1995年)	산프레체히로시마FC유스
第 4 回(1996年)	베르디카와사키유스
第 5 回(1997年)	시미즈에스펄스유스
第 6 回(1998年)	카시마앤틀러스유스
第 7 回(1999年)	빗셀코베유스
第 8 回(2000年)	감바오사카유스
第 9 回(2001年)	쿄토퍼플상가유스
第10回(2002年)	감바오사카유스
第11回(2003年)	산프레체히로시마FC유스
第12回(2004年)	카시마앤틀러스유스
第13回(2005年)	시미즈에스펄스유스
第14回(2006年)	산프레체히로시마FC유스
第15回(2007年)	FC토쿄U-18
第16回(2008年)	감바오사카유스
第17回(2009年)	FC토쿄U-18
第18回(2010年)	요코하마F마리노스유스
第19回(2011年)	나고야그램퍼스U18
第20回(2012年)	콘사도레삿포로U-18

鹿島アントラーズユース vs ザスパ草津群馬U-18 ©KASHIMA ANTLERS

카시마앤틀러스 VS 더스파쿠사츠군마U-18

名古屋グランパスU18 vs ガンバ大阪ユース

나고야그램퍼스U18 VS 감바오사카유스

원본다운 클릭 ☞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0/vol0210.pdf